



오늘의 날씨와 생활

6월 9일 수요일 음 4월 29일 (6월)

기상정보

호리고 비



제주는 호리고 비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1℃, 낮 최고기온은 25-28℃로 전망된다.

Table with 2 columns: Time (오전, 오후) and Weather (강수 확률, 습도, 풍속, 파고). Rows show 30%, 60%, 80% probability and 30% humidity for Jeju, Gyeongju, and Seogwipo.

Table with 2 columns: Time (해돋이, 해질, 일출, 일몰) and Location (해돋이, 해질, 일출, 일몰). Rows show times for Jeju, Gyeongju, and Seogwipo.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주의, 매우 높음

Table with 2 columns: Location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and Level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Rows show PM10 and PM2.5 levels for Jeju, Gyeongju, and Seogwi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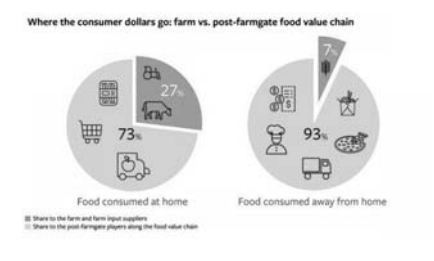
Table with 2 columns: Day (내일, 모레) and Forecast (호리고 비, 온도). Rows show 21/28°C and 21/27°C.

월드뉴스

농산물 가격 중 농민 몫 3분의 1 안돼

나머지는 유통 등 부가가치

세계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사면서 지불하는 가격 중 1차 생산자인 농민에게 돌아가는 몫은 약 27%로 3분의 1에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가격에서 농민의 몫을 나타낸 도표.

특히 이런 농산물이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소비될 때 농민의 몫은 7%까지 낮아졌다. 나머지는 농민의 손을 떠나 도·소매 유통과 가공처리, 식당 서비스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차이가 됐다.

생산자의 몫은 16~3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편의성을 찾아 가공처리된 식품을 소비해 농민의 몫이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평균치는 약 27%.

미국 코넬대학교 외신 등에 따르면 이 대학 '찰스 H. 다이슨 응용경제·경영학과'의 크리스 배티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세계 식품품 경제의 90%를 차지하는 61개 중·선진국의 2005~2015년 자료를 분석해 얻은 이런 결과를 과학 저널 '네이처 푸드'(Nature Food)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농산물 생산부터 유통과 가공처리, 서비스, 소비 등에 이르는 가치 체인에서 80~85%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중간 단계에 관해서는 어느 것이 별로 없으면서 이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중·선진국의 가정에서 소비되는 농산물 가격 중 1차

한리일보 제주 대표신문. Contact info: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Website: http://www.ihalla.com

건강&생활



김연덕 제주성모안과

나이 들어가는 슬픔의 벼

지난 수요일 오전, 환자 한 분이 오시면 서 분위기가 긴박해졌다. 필자는 5년 전부터 시력검사와 안저사진, 광간섭단층촬영을 통해 꾸준히 경과를 지켜보던 터였다.

오려려 눈물 흘림이나 이물감으로 더 불편해지지만 하시리라 말씀드렸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은 맥이 빠지는 소식이다. 환자는 다년간 루테인을 복용해도 차도가 없으며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재차 궁금해했다.

황반변성으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눈 안에 항체주사를 놓았으나 반응이 없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필자는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을 뿐이었다.

관계 질환, 흡연, 고콜레스테롤 혈중, 과도한 자외선 노출, 낮은 혈중 항산화제 농도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황반변성에는 건성(비삼출성)과 습성(삼출성)이 있다. 90%에 해당하는 건성(삼출성)은 건성이며, 노화로 노폐물이 쌓여 신경이 위축되면서 발생한다.

황반변성은 망막 밑으로 비정상적인 혈관이 자라 삼출물이나 출혈이 발생하며 급속스러운 시력 저하를 동반한다. 비정상적인 혈관을 치료하기 위해 안구 내 주사, 광역학 요법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다.

약화되므로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대응과 치료가 중요하다.

AREDS 연구라 불리는 대규모 연구에서 비타민과 미네랄(루테인, 지아잔틴, 비타민C, 비타민E, 아연, 구리)을 복용하면 황반변성의 진행을 약 25% 정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로초를 구하려 전세계에 사람을 보낸 진시황 이래, 노화를 막을 길은 현재로서는 요원하다. 의사로서 무력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겸허해질 수밖에 없다.

열린마당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아직 모르셨나요?



김진경 제주시 도두동

부동산 혹은 금융거래 등 중요한 계약에 빠지지 않는 서류가 인감증명서이다. 인감증명서로서 본인의 의사를 확실히 할 수 있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인감증명서가 쓰이지만 인감제도도 몇가지 문제점을 동반한다.

사 후 인감도장을 바꾸고자 하는데 인감대장이 이송되지 못 한 경우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겪게된다.

오래도록 존재해 온 인감이지만 위와 같이 부정적인 위임발급으로 인한 문제나, 관리의 문제 등 불안정한 요소들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이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위한 방법



진선희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과거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의 홍보 방법에서 최근에는 SNS, 유튜브 등의 홍보방법으로 발전했고, 코로나19로 인해 SNS와 유튜브 같은 언택트 마케팅이 필수로 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행정력과 광고물 처리 비용이 수반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등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며, 관련 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가능한 위치에 올바른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언택트 마케팅 시대에도 불구하고 평소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홍보방법은 현수막과 입간판, 벽보와 같은 광고물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광고물은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지정된 게시 시설이 아닌 대중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변에 가로수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많다.

서귀포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유통광고물을 정비해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 유통광고물 제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행정에서는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

우리 모두의 안전과 아름다운 환경을 위해 바로 지금년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은 어떤가요?

Large advertisement for WIDEX hearing aids. Title: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Hearing aid purchase tips, if you know just this, you won't regret it!). Includes text about WIDEX benefits, a table of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Jeju Center.

Footer advertisement for WIDEX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WIDEX Hearing Aid Jeju Center). Address: Jeju City Dongguro 4, Samok Bldg 3F. Phone: 064-755-1005.